

[P1-15]**심층면접을 이용한 취학 전 아동과 어머니의 식품에 대한 가치관 및 체형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윤진숙¹ · 정영혜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식품 선택의 동기는 다양하며 개인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아기는 여러 가지 기본개념들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잘못된 교육을 받을 경우 개념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못하거나 왜곡된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유아기의 올바른 식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어머니의 식품선택 동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식품기호도, 체형에 관한 인식과 유아의 식품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영향 등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4~6세 유아와 그 어머니(각 30명)를 대상으로 각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43%는 아이의 식품기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 자신'이라고 답하였으며 '임신 중의 섭식과 관련'의 경우도 응답자의 23%이었다. 식사준비나 식품구매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기호도(37%), 위생적 측면(17%), 건강 측면(13%), 영양적 측면(13%), 편의성, 경제면 순 이었다. 간식 제공에 고려되는 요인에서도 아이의 기호도(43%)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 외에 건강(33%), 편의성(23%)이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이 싫어하거나 먹지 않는 음식은 식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43%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결국 식품 기호도는 어머니의 식품 선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치관임을 나타내었다. 아이의 균형 잡힌 식습관 습득을 유도하기 위해 어머니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건강관련(37%)'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성장', '질병예방' 순이었다. 편식개선을 위해서는 '조리방법'을 바꾸어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아의 식품선택은 단순히 '맛'에 좌우되었으며 유아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채소(39%)라고 가장 많이 답한 반면 가장 싫어하는 음식에서도 채소(50%)라고 답해 몸에는 좋지만 먹기 싫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기호도 일치율은 60%였으며 유아는 건강에 대한 식생활 정보를 어머니로부터 얻는 경우가 45%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70%는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였고 그 중 95%는 자신은 통통하거나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좀 더 날씬해지길 원하고 있었다. 또 만족하는 경우(30%)는 모두 자신을 약간 마른 형이나 보통 체격이라고 여기는 경우였다. 반면 자녀의 체형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70%였으며 그 중 86%가 좀 더 통통해지길 원하고 있어, 어머니 자신은 날씬해지기를 바라지만 아이는 좀 더 통통한 건강체형을 가지길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식품에 대한 가치관은 식품 기호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유아는 어머니에게서 가장 많은 식생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어머니와 식품기호도의 일치율도 높았다. 어머니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아이간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는 어머니와 유아의 식품 선택과 섭취량에 제한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아의 식품에 대한 가치관과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그리고 체형인식을 위한 영양정보의 제공과 영양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P1-16]**한국 성인여성의 홈쇼핑을 이용한 식품 구매 실태**차정훈¹ · 박은숙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홈쇼핑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아 홈쇼핑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바른 홈쇼핑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이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 중 회수된 542부(90.3%)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의 홈쇼핑을 이용한 식품 구매는 인터넷 쇼핑 > 케이블 TV 쇼핑 > 카탈로그 쇼핑 순 이었으며, 식품의 중

류는 가공식품 > 농산물 > 축산물 > 건어물 > 건강식품의 순이었다. 홈쇼핑을 이용한 식품 구매의 목적은 주로 가족이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명절이나 기념일 보다는 평상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케이블 TV 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은 30대·40대가, 인터넷 쇼핑은 20대·30대가 식품 구매 경험이 많았다. 케이블 TV 쇼핑과 인터넷 쇼핑은 대도시에서, 카탈로그 쇼핑은 중소도시에서 구매율이 높았다. 핵가족이 홈쇼핑의 구매경험이 더 많았으며, 직장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3) 홈쇼핑으로 구입한 식품에 대하여 불만족한 이유는 식품의 품질이 스크린이나 사진에서 본 것과 다르다는 점이었다.

4) 홈쇼핑을 이용하는 식품 구매자의 특성은 혁신성, 브랜드 민감성, 가격 민감성, 쾌락적 쇼핑의 점수가 높았다.

5) 마케팅 자극 정도는 식품 구매자는 비구매자에 비하여 '식품이 맛이 있어 보일 때', '식품이 싱싱해 보일 때',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볼 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때',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을 때' 구매 욕구가 높았다.

6) 홈쇼핑에 대한 인지 정도는 식품 구매자는 '편리하다', '점포방문의 번거로움이 없다', '쇼핑시간에 구매받지 않는다', '지역특산품을 구할 수 있다',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에프터서비스를 받기 용이하다', '필요한 시점에 배달될 것이다', '냉장·냉동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의 항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홈쇼핑 업체는 식품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식품 포장재 개발 및 배송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홈쇼핑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홈쇼핑 상거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홈쇼핑 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이를 고지하는 인증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P1-1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학 전 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수준 비교

-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

김복희 · 이윤나 · 이행신 · 장영애 ·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 보건영양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가정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식생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약 4,000가구,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가정의 3,482명과 취업주부가정의 2,731명의 가족에 대한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test를 적용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식품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가족 1인 당 총 식품 섭취량은 전업주부가정의 경우 1.324 g, 취업주부가정의 경우는 1.305 g이었으며,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은 302.6 g과 288.2 g으로 취업주부가정에 비해 전업주부가정에서 식품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식품군별 섭취량의 분포에서는 전업주부가정에서는 감자류, 버섯류, 과실류, 해조류, 음료 및 주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섭취량이 높은 반면에, 취업주부가정의 경우는 곡류와 채소류의 섭취량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품 섭취패턴의 차이는 영양소 섭취수준에 영향을 미쳐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전업주부가정의 가족구성원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가족구성원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의 식생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가정에 비해 취업주부가정의 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이 낮았으나, 20세 이상 가족구성원에서는 주부취업에 따른 섭취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부의 식생활 관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군인 19세 이하 자녀에 대해 주부의 취업여부에 대한 식품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업주부가정의 취학 전 아동(3~6세), 초등학교 어린이(7~12세) 및 청소년(13~19세) 등 세 연령군에서 총 식품섭취량을 비롯하여 식물성식품 및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 < 0.05$), 식품군별 섭취량에서도 곡류, 감자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등의 섭취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품섭취량의 차이는 영양소 섭취수준에 영향을 주어 나트륨을 제외한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량 역시 전업주부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주부의 취업은 가족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 가족구성원 보다는 스스로 식품의